



명품 교육을 실현하는 경북 교육

명품

2010. 12. Vol. 72

경북교육



경상북도교육청
Gyeongsangbuk-do Office of Education

자연·꿈·희망이 영글어가는 전원 학교 – 경산 남산초등학교 어린이들





명품 경북교육

2010 DECEMBER

Vol. 72

C O N T E N T S

- 04 본청 소식
「명품/ 경북 교육」 선포식
- 12 직속기관/지역교육청 소식
JUST★ 상주를 만나다
- 14 학교 소식
행복한 10분, 그림책을 만나다
- 22 교육위원회 소식
- 23 아름다운 이야기
아낌없는 후배 사랑

새로운 생각 + 참된 마음

「명품! 경북 교육」 선포식

경상북도교육청은 2010년 10월 27일 13시, 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에서 학생, 학부모, 초청 내빈, 학교장,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 등 1,200여 명의 교육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향후 4년간(2011년-2014년) 추진할 4대 시책 40개 과제의 실천을 다지는 『명품! 경북 교육』 선포식을 가졌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새로운 경북 교육 지표를 「새로운 생각과 참된 마음을 지닌 인재 육성」으로 설정하여 발표하였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4대 시책과

이 시책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40대 과제를 제시, 『명품! 경북 교육』의 차질 없는 실천으로 희망 있는 경북 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

경북 교육의 방향으로

- 『명품! 경북 교육』을 브랜드로 하고
- 교육 지표는 '새로운 생각과 참된 마음을 지닌 인재 육성'으로 각각 설정하였다.
- 4대 주요 교육 시책은

첫째, 실천 중심 인성 교육 강화

둘째, 미래 지향 교육과정 운영

셋째, 최상의 교육 복지 실현

넷째, 신뢰 받는 지원 행정 구현으로 정하였다.



경상북도 학생숙과교육

새로운 생각과 참된 마음을 지닌 인재 육성을 위한

「명품! 경북 교육」 선포식

일시: 2010. 10. 27(수) 10:00 ~ 10:30 (11:00 ~ 11:30) • 장소: 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
주최: 경상북도교육청



새로운 생각과 참된 마음을 지닌 인재

「명품! 경북 교육」

- 브랜드 『명품! 경북 교육』은 경북 교육이 추구하는 교육 내용, 교육 정책, 교육 서비스 자체를 말하며, 그 의미를 정리하면,

 - 첫째, 「경북 교육의 전통성」에 대한 천명이고,
 - 둘째, 「경북 교육의 큰 인재 육성에 대한 다짐이며,
 - 셋째, 「경북 교육의 초일류화」에 대한 의지이고,
 - 넷째, 「경북 교육의 선진화」의 미래상이다.

- 『명품! 경북 교육』의 역점 추진 과제

 - ◆ 역점 과제 1. 365일 안전한 학교 만들기
 - ◆ 역점 과제 2. 공교육 내실화로 사교육비 줄이기
 - ◆ 역점 과제 3. 맞춤형 학습 지원으로 학력 올리기
 - ◆ 역점 과제 4. 더불어 살아가는 교육 복지 실현하기
 - ◆ 역점 과제 5. 수요자가 만족하는 적정 규모 학교 육성하기

- 교육 지표 ‘새로운 생각과 참된 마음을 지닌 인재 육성’은 도민을 대상으로 한 공모와 설문 조사를 통해 선정되었고, 주민 직선 2대 이영우 교육감의 교육 철학과 2009 개정 교육 과정의 핵심 정신을 담고 있으며, 새로운 생각을 올바르게 진실한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참된 마음을 지닌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경북 교육이 지향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이다.

꿈·끼·열정의 행복 축제 한마당

-제12회 경상북도학생축제 개최-

경상북도교육청은 10월 27일부터 환태평양시대를 열어갈 전진기지 포항에서 제12회 경상북도학생축제를 개최하였다. 포항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가행된 축제는 10월 27일부터 일주일간 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에서 '교육가족작품전시회' 개막을 시작으로 『명품 경북 교육!』 선포식 및 학예발표 공연 등 다양한 행사들이 상대히 개최되었다. '큰 꿈이 자라는 교실 행복이 샘솟는 학교, 미래를 창조하는 명품 교육' 구현의 일환으로 실시한 이번 축제에서 학생들은 평소 학교에서 길고 닦은 기량으로 꿈·끼·열정을 화려하게 수놓으며 행복 축제 한마당의 주인공이 되었다.

개회식에서 이영우 교육감은 격려사를 통해 경북교육의 지표를 '새로운 생각과 참된 마음을 지닌 인재 육성'으로 설정하였으며 세계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생각을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참된 마음을 지닌 인재로 성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직업교육 선진화 열정으로 최우수교육청 선정

경상북도교육청은 학교경영 혁신사례와 교수·학습 우수사례의 보급과 일반화를 통해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를 촉진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주최하는 2010학년도 전국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 연구대회에서 교수학습분과 1등급 1편, 2등급 2편, 3등급 2편, 학교경영분과에서 2등급 2편, 3등급 3편이 입상하는 큰 성과를 거양하여 전국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었다

특히 금오공업고등학교 교사 박복재·신동열은 '무학년 코티칭(Co-teaching) 과제 중심 협동학습'에 관한 수업 모형을 공동 연구하여 교수·학습 분과에서 전국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였으며, 입상자들의 열정적인 연구 결과는 경북 직업교육의 위상을 전국에 알리고 직업교육의 질을 개선하는데 큰 몫을 담당하였다.



가을, 음악의 향기에 취하다

경상북도교육청은 10월 28일부터 사흘간 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에서 '2010 경북학생음악제'를 개최하였다. 창의·인성교육의 축제마당이 된 경북학생음악제는 첫째 날은 '제16회 경북국악제', 둘째 날은 '제34회 경북관악제', 셋째 날은 '제2회 경북합창제'가 각각 오후 2시부터 한미당씩 펼쳐졌다.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경북학생음악제'는 학생들의 소질과 능력을 계발하고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뜻 깊은 행사로서 지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음악 마인드를 심어주고 정서를 순화하여 차원 높은 음악 문화를 세계적인 음악인으로 발굴·양성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지구촌 구석까지 뻗어가는 경북교육정보화

-경북교육청 과테말라 교원 초청 연수 실시-

경상북도교육청은 중미에 있는 과테말라 교원 12명을 초청하여 10월 17부터 11박 12일의 일정으로 경산 소재 중소기업대구경북연수원에서 교육정보화 연수를 실시하였다.

2006년에 시행하여 올해 5년차를 맞이하는 과테말라 교원 초청 연수는 학교현장의 교육정보화 기반 학습 프로그램 체험, 한국 문화 및 생활체험을 위한 경주의 유적지와 포스코 등 우수 기업체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전략적 투자 대상국에 e-러닝 노하우를 전수함으로써 지식정보격차해소와 국제협력을 통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경북 체육 교육, 전국을 휩쓸다

-제91회 전국체육대회 최고 성적 거양-

10월 6일에서 12일까지 경상남도에서 개최된『제91회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한 34종목 642명의 경상북도 선수단이 역대 최고의 실적(메달순위 3위, 종합순위 5위)을 거양하여 응도 경북 체육의 영광을 재현하였다. 이는 당초 메달점수 변경과 단체전을 포함한 토너먼트 경기의 대진불운에도 불구하고 대회 첫째 날부터 선수·임원 그리고 대회관계자, 학부모 등이 경기장 안팎에서 하나가 되어 선전 분투한 값진 결과이다.

특히 이번대회에서 고등부 학생들이 선전하여 그동안 흘린 땀과 열정이 사상 최대의 메달(고등부-금메달 31개, 은메달 23개, 동메달 30개, 합계 84개)을 획득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함으로써 경북 체육교육의 위상을 드높였다.

★대회 3관왕 역 도 강윤희(포항해양고등학교)
권유리(금오여고, 한국신기록·한국타이기록)

★대회 2관왕 사이클 안영문(영주제일고)
양 궁 정수정(경북체고, 대회신기록)·구본찬(경북체고)



책책! 북북! Best-seller 따라잡기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본청 전 직원 4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감이 선정한 책책북북 Best-seller 따라잡기』 행사를 10월 20일부터 16일간 실시하였다.

자발적 참여를 통한 책 읽기 공감대를 형성하고 개개인의 업무 경쟁력 강화와 자기계발에 보탬을 주고자 실시한 이번 독서행사는 독서와 토론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영우 교육감이 박재원 작가의 「핀란드 부모혁명」, 박완서의 「못 기본 길이 더 아름답다」,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등 직접 베스트셀러 10권을 제시하였다.

깊어가는 가을밤 경북교육청사에서 들려오는 전 직원의 책장 넘기는 소리가 경북 교육 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



전몰 학도 의용군 추모식

경상북도교육청은 학생독립운동 기념일과 6.25전쟁 발발 60주년을 기념한 전몰 학도 의용군 추모행사가 11월 3일 국립영천호국원에서 거행되었다.

추모식은 생존 학도 의용군과 경북지역 학생대표 등이 참석해 안보의식과 나라사랑 하는 마음을 체험하게 하는 행사가 되었다. 6.25 전쟁시 군번도 계급도 없이 나라를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전선에 참여해 산화한 전몰 학도 의용군의 거룩한 희생정신과 애국심은 오늘을 사는 우리 학생들에게 전쟁에 대한 교훈을 깨닫게 하였다. 추모식은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에게 국가와 민족의 소중함을 새기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들아, 정말 사랑한다!"

경상북도교육청은 부자(父子)간 의사소통의 기회를 제공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행복한 가족을 만들기 위한 '아버지와 함께하는 꿈찾기 행복 체험 캠프'를 운영하였다. 11월 13일부터 14·2일 일정으로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이루어진 이번 캠프는 포항·경주 지역 중학생 부자(父子) 중 희망자 100명이 참가하여 다양한 체험 중심의 친화력 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의 꿈과 희망을 이해하고, 부자가 함께하는 바람직한 진로탐색을 체험하였다.

경상북도교육청은 지난해 부자캠프를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올해는 4개(경산, 안동, 구미, 경주) 지역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원자력, 이해와 나눔으로

-초·중학생 학부모 원자력 이해 나눔 연수-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11월 23일부터 1박 2일간 울진원자력발전소와 영덕풍력발전소 등에서 도내 초·중학생 학부모 64명을 대상으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중요성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였다. 「원자력과 미래의 에너지」란 주제로 원자력 발전의 긍정적 인식과 원전정책의 대국민적 합의를 이끌기 위해 울진원자력발전소 허윤취 발전부장의 강의와 울진원자력발전소와 청송수력발전소, 영덕풍력발전소 견학 등 체험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연수를 통하여 학부모들에게 원자력발전과 비발전 분야에 대한 교육으로 원자력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됨을 알고 관심도를 높이고, 특히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이해 증진에 큰 도움이 되었다.



직속기관/지역교육청 소식



JUST★ 상주를 만나다

국립중앙도서관·조선일보·교보문고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 협회가 주관한 『길위의 인문학사업 역사 분야에 선정된 경상 북도립상주도서관(관장 백도흠)은 10월 22일 상주 성신여자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내 고장 역사탐방 프로젝트를 진행 하였다.

상주도서관은 문화유산 해설사를 동반한 현장답사와 해설을 통해 학생들이 상주에 대한 긍지와 애郷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청소년맞춤형서비스 행사로 디지털도서관 탐방, 대학캠퍼스투어, 역사문화유적 탐방, 명사초청 특강, 청소년 문학상 도서전시회, 북아트 체험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여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도서관이 되고 있다.

출사동이, 골든벨을 울리다

10월 29일 문경 실내체육관에서는 '2010 문경 출사동이 가족 골든벨 대회'가 열렸다. 문경교육지원청 교육장 임창호)과 문경 문화원(문화원장 현한근)의 공동주최로 개최된 이번 대회에서는 예선을 통해 선발된 문경시 관내 초등학교 5학년 100가족이 출전하여 우리 고장의 자연환경과 전통문화에 대한 문제를 풀며 골든벨을 울리기 위해 도전하였다. 안동 MBC 이경민씨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직접 참여한 골든벨 도전 가족들과 지역 학생들은 내 고장에 대한 자긍심과 가족 간의 화목을 돈독하게 만들어 준 뜻 깊은 행사가 되었다며 입을 모았다.





너와 나의 징검다리, Wee센터

영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영직 Wee센터에서는 10월 1일부터 사이버멘토링 '징검다리'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동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사이버멘토 21명은 관내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부진, 대인관계 등의 고민거리들을 주 2회 e-mail을 통한 상담으로 청소년의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 외에도 위기 상황 발생시 Wee센터로 즉시 연계함으로써 학생과 Wee센터 사이의 징검다리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고 있다.

Wee센터는 사이버멘토링 원리와 기술 교육, 멘토링 슈퍼버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징검다리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있으며 사이버 멘토에게는 상담역량 강화를 돕고, 사이버 멘티에게는 전문화된 사이버 멘토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아 성장을 돕는 상승효과를 낳고 있다.

새내기 교사들, 행복산을 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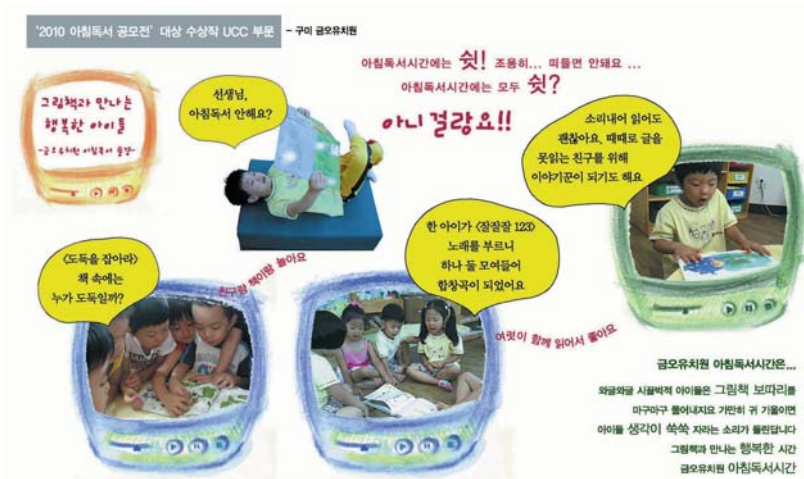
경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임종성은 11월 20일에 교육장과 신규 교사들의 진솔한 대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남산 등반을 실시 하였다. 5년 이하의 초임 신규교사들 중 16명이 참가하여 살아 있는 자연 박물관 이란 별칭의 경주 남산을 등반하는 동안 교사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경주교육 발전을 위해 열정을 쏟기로 다짐하는 등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신규교사들은 교육장과의 대화를 통해 교직생활 전반에 따른 고민을 이야기하고 해결책을 모색하였으며 임종성 교육장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신규교사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금오유치원

행복한 10분, 그림책을 만나다



아침독서운동 시행 5주년과 『아침독서신문』 50호 발간을 기념하여 전국의 유·초·중·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0 아침독서운동 글쓰기·사진·UCC 공모전'에서 금오유치원의 조민지·권지영 교사가 영예의 대상인 국립중앙도서관장을 공동수상했다. 그림책을 만나는 아이들과 그림책의 매력에 푹 빠진 선생님들의 함께 책 읽는 소리가 금오유치원 구석구석에서 새어나와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알리고 있다.

영해초등학교

내가 먼저 인사하기, 함께 하실래요?

영해초등학교(교장 김도걸)는 2010년 3월부터 지역 내 인사문화실천 협의회(회장 김천석)와 함께 학생 및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내가 먼저 인사하기 실천 운동을 펼쳐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매주 수요일 아침이 되면 교문 앞에서 인사문화실천협의회원들이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내가 먼저 인사 합시다", "초면에도 인사 합시다"의 어깨띠를 매고 먼저 인사를 함으로써 하면 기쁨 받으면 행복이 되는 먼저 인사하기 운동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 의 큰 힘이 되고 있다.



포항죽도초등학교

푸름이들 전국을 탐구하다

포항죽도초등학교(교장 조성제)의 과학동아리 푸름이환경탐구반(지도교사 이민경)이 10월 2일 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에서 개최된 2010 전국과학동아리 활동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 수상의 쾌거를 이루었다. '푸른하천치킴이들의 우리지역 하천 탐구'라는 주제로 포항지역의 하천인 '기계천'의 수질 측정, 동·식물 조사, 수질 오염과 관련된 내용을 과학적으로 탐구한 푸름이들은 과학적 사고력과 탐구력의 증진뿐만 아니라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마음을 다지며 녹색치킴이로서의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구미 진평초등학교

「게으름뱅이 두 마리」를 펼치면

구미 진평초등학교(교장 박영철) 시교실의 여덟 어린이가 10월 13일에 진평교육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집「게으름뱅이 두 마리」발간 기념회를 가졌다. 2006년 처음 문을 연 진평 시교실은 '시 쓰기'를 좋아하는 3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모집·선발 후, 2년 동안 방과 후에 모여 시를 공부하고, 1년에 한 번씩 시집을 펴내는 자발적 동아리로서 '똥보 아저씨네 과일가게(2006), 엄마의 자장가(2007), 웃어주세요(2008), 김박대장(2009), 게으름뱅이 두 마리(2010) 등 현재까지 다섯 권의 시집을 발간하였으며 여덟 시인들은 시 쓰기를 통해 미래 노벨문학가로서의 큰 꿈을 키우고 있다.



청도 동곡초등학교

강바람 따라 씽씽 달려보자

청도 동곡초등학교(교장 최원식)는 10월 11일에 동창천 강변에서 강바람 따라 함께 달리는 단축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였다. 강변 단축 마라톤 대회는 금천면 동창천 강변을 따라 달리는 2Km 코스로서 1~6학년 학생들이 모두 참가하였다. 비만아 관리와 우수선수 발굴을 위해 매일 아침 8시 20분부터 40분까지 건강 달리기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대회에서는 전교생이 함께 참가하여 평소 소외감을 느끼기 쉬운 비만학생들에게 성취감과 함께 더불어 달리는 기쁨을 느끼게 하고 있다.



경산 옥곡초등학교

열 손가락이 춤을 춘다



경산 옥곡초등학교(교장 김형홍)는 10월 13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건강 출발! 올바른 손 씻기 경연대회를 열었다. 이 대회는 전염성 질환의 70%를 예방할 수 있는 손 씻기를 학생들로 하여금 직접 체험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심사 기준은 올바른 손씻기 6단계(40점), 손수건 지참(20점), 손 세정 검사(40점)이다. 손씻기 체험을 통한 참여 학생들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번 행사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손 씻기의 중요성과 실천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상주 사벌초등학교

우리는 독도 홍보대사

상주 사벌초등학교(교장 유영수)는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맞이하여 나라사랑과 독도사랑 마음을 키우기 위해 독도 T-셔츠 만들기, 독도 사랑 글짓기 발표, 독도 사랑 예쁜 글씨 꾸미기, 독도는 우리 땅 노래 부르기 등 다양한 행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독도의 날 행사 중 '내가 만든 독도 T-셔츠'는 학생들이 자신의 옷에 직접 독도 사랑의 마음을 새겼으며 이날 행사를 통해 학생들은 독도는 우리 땅임을 널리 알리는 국민 홍보대사가 될 것을 다짐하였다.



영천초등학교

청와대로 간 아침햇살 기자단

영천초등학교(교장 인증호) 아침햇살 기자단은 10월 9일 제564회 한글 날을 맞아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주최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주관하는 대한민국 어린이 기자단 청와대 초청행사에 참석했다. 청와대 대정원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직접 쓴 '사랑합니다'라는 글귀가 담긴 티셔츠를 선물하면서 "내가 직접 쓴 것이니까 세탁할 때도 물로 살살 빨아서 오래 가도록 하세요"라고 농담을 건네며 한글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으로 자리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천 위량초등학교

꿈찾아 지혜찾아 떠난 녹색지킴이들

김천 위량초등학교(교장 정병철)는 지혜 찾아꿈 찾아 떠나는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연중 다양하게 운영하여 배운 것을 생활 속에 실천하도록 특색교육을 하고 있다. 10월 9일에는 김천지역 환경안전관리자 협의회(회장 이재학)에서 실시하는 어린이 환경·안전학교에 전교생이 등교하여 녹색 환경과 학교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 배우며 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한 환경 지킴이가 될 것을 다짐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포항남부초등학교

우리 식물 척척박사들

포항남부초등학교(교장 이병선)가 11월 6일 국립수목원(광릉숲)에서 개최된 2010 우리식물 바로알기 전국 경연대회에서 6학년 김사은·최창원, 5학년 권서영 학생이 팀을 이루어 전국 30개 초등학교와 당당하게 실력을 겨뤄 최우수상을 받았다. 학생들은 "대회에 나가기 위해 강대선 선생님과 함께 경북수목원 대구수목원을 비롯한 대구 경북지역 식물원이나 공원 등지를 찾아다니며 식물을 직접 관찰하며 공부한 것이 도움이 됐고 이 과정에서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알 수 있어 더욱 좋았다"고 입을 모았다.



상주 모동초등학교



‘김치의 일생’ 너를 만나서

상주 모동초등학교(교장 송병석)에서는 11월 11일에 모동교육가족과 중모중·고등학교 교육가족 등 2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마당극 ‘김치의 일생’ 공연 행사를 벌였다.

문화관광부후원으로 ‘갯돌’극단에 의해 추진된 이날 행사는 문화 소외 지역의 문화적 욕구를 해소해 주었으며 참석한 지역민들에게 우리 문화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우는 시간이 되었으며 공연 후에는 공연 소감 말하기, 학부모 독서토론회를 개최하여 직접 참가하는 문화행사가 되었다.

칠곡 왜관중앙초등학교

가래떡 Day를 아시나요?

칠곡 왜관중앙초등학교교장 권기형에서는 11월 11일 11시부터 농민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농산물 사랑 체험활동으로 ‘가래떡 Day’ 행사를 벌였다. 이 날 행사에는 학부모들과 6학년 학생 120여명이 참가하여 직접 가래떡을 썰어보는 체험을 한 후 자신이 직접 썬 가래떡을 이용해 떡볶이를 만들어 나누어 먹었다 가래떡을 받아든 아이들은 “흔한 가래떡이 이렇게 좋은 의미를 담으니 더 맛있고 이제부터는 빼빼로 대신 우리 떡을 선물 해야겠다”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



울진 죽변중학교



아직도 교실엔 불빛이

울진 죽변중학교(교장 서제선)에서는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지역민과 힘을 합쳐 밤낮으로 매진하고 있다. 전 교직원과 지역민들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전체 학생수의 30%가 넘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해 한마음 한뜻이 되어 2009년부터 방과후 수업과 방학 중 보충수업을 실시하여 면학분위기 조성에 힘을 쏟아왔다. 바닷바람이 매서운 늦가을 밤에도 교실을 밝히고 있는 불빛이 바닷가 아이들에게 희망찬 미래를 안겨주고 있다.

영주 단산중학교

미래 도시로의 기술길 여행

영주 단산중학교(교장 김성진)는 11월 15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산업기술미디어 문화재단 후원으로 코리아 테크로드 투어를 실시하였다. 삼성 딜라이트의 최첨단 디지털 기기견학,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 파빌리온 체험, MBC 방송국 견학, 전등사, 부천 로봇파크, 에너지 관리공단 등 다양한 기술체험을 통해 최첨단 산업인 디지털 산업에 대해 직접 체험하는 유익한 기회가 되었으며, 미래가 공상이 아닌 실제 다가올 미래인 것을 실감하고, 이러한 세상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현명함과 지혜, 미래에 선택해야 할 직업에 대한 폭을 넓힐 수가 있었다.



군위 우보중학교

열린 음악회, 함께 갈까요?

군위 우보중학교(교장 정규택)는 11월 17일 우보면민 복지회관 강당에서 지역주민과 학부모 및 학생 17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유명 색소폰연주단을 초청하여 『학생, 학부모, 지역민이 함께하는 열린 음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문화적으로 소외된 소규모 농촌 지역의 주민들과 학생들에게 음악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선사하여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진행된 문화체험 행사로 아름다운 색소폰 연주와 더불어

수화, 영어연극, 댄스 등의 학년별 교육활동 발표와 가족 중창, 방청객 장기자랑 코너 등도 함께 운영되어 지역민과 학부모, 학생이 함께 어우러지는 풍성한 행사가 되었다.



경북관광고등학교



힘찬 스매싱! 전국을 강타하다

경북관광고등학교(교장 전병대) 정구부는 10월 6일부터 12일까지 경남 창원에서 열린 제91회 전국 체육대회에서 단체전 금메달, 개인복식 동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하면 된다"는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동아일보기 전국 정구 대회 단체전 우승, 전국 중·고등학교 연맹 정구 대회 단체전 우승, 대통령배 전국 정구대회 단체전 우승을 하는 등 전국대회 4관왕의 위업을 달성하는 등 창단 5년 만에 전국대회를 휩쓰는 성과를 올리고 있다.

경북생활과학고등학교

세계로 향하는 한국의美

경북생활과학고등학교(교장 윤용화)는 11월 11일 서울 시청광장 앞에서 열린 '2010 한국고전머리 재현 공모 대회'에서 피부미용과 8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여 대상 1명, 금상 2명, 은상 5명 등 참가자 전원이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한국고전머리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대학생, 고등학생들이 참가하는 전국대회에서 열띤 경연을 펼친 입상자들은 한국고전머리형에 창의성을 부여하며 다양한 작품을 표현하였으며 이날 대회는 한국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겠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미용인의 꿈을 펼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의성 금성중 · 고등학교

금요일은 더 행복해요

의성 금성중 · 고등학교(교장 박상오)는 지난해부터 매주 행복한 금요일 날을 운영, 교직원과 전교생들이 성과에 대한 평가 및 화합의 장을 마련해 서로에 대한 행복한 마음을 다지고 있다. 방과 후 7·8교시를 이용해 1학기엔 다양한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사제간 대결로 서로의 정을 더욱 돈독히 다졌으며, 2학기에는 문예활동을 중심으로 워드, 십자수, 바둑, 영화 감상 UCC제작반, 보드게임반, 등산반 등 강의 폭을 대폭 확대하였다. 「행복한 금요일 활동은 학생들에게 학업에 지친 마음을 떨쳐버리고 자신을 더욱 발전·계승하려는 의지를 갖도록 유도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신체운동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 및 학생들의 잠재능력을 키워주고 있다.



금오공업고등학교

우리 곁엔 책!책!책!

모바일 마이스터 금오공업고등학교(교장 박정용)가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실시한 '2010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에서 학교도서관 분야 우수 학교로 선정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상했다. 금오빛글 도서관을 중심으로 마이스터 도서관 · 독서교육, 세계 책의 날 행사, 독서의 달 행사 등이 포함된 '금오 Big3 마당'이라는 독서 행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마이스터 학생을 대상으로 '금오빛글 독서노트'를 통한 독서 이력제도, 독서퀴즈 대회, 한여름 밤의 도서관-12 시간동안 책 읽기 프로젝트, 사제동행 독서편지 나누기, 마이스터 문학기행, 마이스터 독서토론 동아리를 중심으로 책과 함께하는 독서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교육위원회 소식

일 시	회의 안건
2010년 10월 15일	□ 안건 심사 :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 조례안 심사 : 경상북도교육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2009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2010년 11월 16일 - 25일	□ 도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행정 사무 감사
2010년 11월 26일 - 28일	□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정리
2010년 11월 29일 - 30일	□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기다립니다...

경북교육가족이 함께 만드는 행복한 동행 명품 경북 교육 73호 원고를 기다립니다.

- 원고내용: 선생님께 쓰는 편지, 학교 소식, 미담사례 등
- 보 낼 곳: 경상북도교육청 기획홍보담당 장학사 김현광(이메일: khg2661@hanmail.net)



아름다운 이야기

봉화중 · 고등학교



아낌없는 후배 사랑

봉화중 · 고(교장 최재동) 졸업생 이창호 제성유압 유한공사 회장이 10월 18일 모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발전기금으로 일흔억 원을 기탁하였다. 모교 발전기금 전달식에서 이 회장은 “후배들이 한국이 아닌 세계를 이끌어 갈 동량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 라고 격려하면서, “학교가 자신을 억압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학교가 자신을 성장시켜 줄 것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학교 교육과정에 충실하여야 한다.” 라는 미래에 대비한 자세를 제시하며 선배로서 후배 사랑을 아낌없이 실천해 봉화중 · 고 재학생들을 감동 시켰다.

울진 후포고등학교

무한 사랑, 현해탄을 건너오다

울진 후포고등학교 교장 이윤규에서는 11월 5일 교직원 및 학생과 학교운영위원장, 동창회장 학부모, 농협조합장 등 지역 유지들과 기탁자의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손일순 여사 장학금 기탁 및 장학금 전달식이 거행되었다. 손 여사는 경제적인 문제로 학업을 할 수 없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부러워했던 자신과 같은 사람이 없었으면 하는 소망을 담은 장학금 팔억 원 (800,000,000원)을 기탁하여 기부 문화 정착에도 좋은 본보기가 되어 참석자들로부터 감동의 박수를 받았다.

★ 손일순 여사(88세, 무학, 현재 일본 오사카 거주)는 울진군 오정면 출신으로 5세 때 부모님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 어렵게 생활하던 중 부모를 여읜 후 남의 집 살이, 고물장사, 훌치기, 이체장사 등을 하여 자수성가한 분이다.

